



양띠 해, 양들의 행진
다사다난 했던 청마의 해가 가고 2015년 을미년 양의 해가 밝아왔다. 평창 대관령 하늘목장의 양들이 서로 몸을 맞닿은 채 평온한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도 서로 의지하며 몸과 마음에 온기를 지기고 평탄한 한해를 보내기를 기원하는 듯하다.

대관령 하늘목장=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피해 여성 억박지르는 모습에 가슴 먹먹”

■ 광주여성민우회 주부 동행단 ‘성폭력 재판’ 방청 후기

“담배 피우느냐” “택시 타고 왔느냐” 쓸데없는 질문엔 분노
불안한 심리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에 든든한 보호자 역할

“피해자와 함께 울고 분노했고 안타까웠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재판동행지원단’ 소속 주부들이 지난 한 해 참관했던 성폭력 재판에 대한 평가다.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하반기 운영했던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재판동행지원단’에 참여했던 주부 14명이 12건의 재판 참관기를 올렸다. 이들은 모두 광주지역 30~50대 주부들로 무성고 불안한 심리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 옆에서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정당한 법의 심판이 이뤄지는지를 지켜보자는 취지

도 했다.
성폭력 혐의로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변변함에 대한 분노,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잊을 수 없었다.
서은숙(여·51)씨는 피고인들 편에서 단답형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며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피고인 변호인을 접하면서 “변호인을 향해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인 계부 측 증인으로 나온 재판을 지켜본 안타까움과 이혼 뒤 친딸을 성폭행한 피고인이 딸을 ‘거짓말 잘하는 아이’라고 몰아가는 데 따른 분노의 감정도 나타났다.
국민의 법 상식과 차이가 있는 재판 과정 및 양형에 대한 불만도 찾아볼 수 있다.
이미란(여·40)씨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변호인이 흡연하느냐, 일하면서 자주 피우냐, 평소 택시를 자주 타느냐, 법정 올때도 택시 타고 왔

느냐 등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을 해줬고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라며 일방적 결론을 내리는 태도를 보았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피고인들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행동에 대한 불쾌함도 드러났다. 김세영(여·31)씨는 “누구에게 들었는지 피해자가 아빠랑 같이 살기를 원한다며 선처를 바라고 했다”면서 “역시 가해자측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뭉뚱하니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김춘희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사건이 많아서인지 성폭력 전담 재판관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인 모두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뒤 불필요한 질문으로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대학 등록금 4차례 이상 나눠서 낸다

교육부, 분할납부제 활성화 방안...강제성 없어 효과 미지수

대학생의 부담을 덜기 위한 등록금 분할납부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분할납부제 범위에 포함해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 분할납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교육부는 분할납부 횟수를 학기당 4차례 이상으로 설정, 원칙적으로 매달 1차례 납부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수납창구뿐 아니라 온라인 납부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포함할 ▲납부기간 ▲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 등의 필

수항목 6개도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분할납부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엔 학적 등으로 형식상 분할납부제를 도입한 대학은 전체 대학의 92.8%나 되지만 2014년 1학기에 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학생은 전체의 2.3%에 그쳤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에는 분할납부제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학기 초에만 가능한 학자금 대출의 신청이 학기 중으로 확대되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나서 등록금이 부족하면 학자

금 대출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편입생 입학 학기의 경우 대학들이 중도 포기자 등에 따른 행정 비용을 이유로 분할납부제 실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시행하지 않는 대학이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상황을 봐가며 인센티브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과 실적은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된다.
연환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달뜨기 15:19, 해질 17:32, 달지기 04:37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regional temperatures for various cities like Gwangju, Seoul, and Busan.

Life index section with icons for walking (25), cycling (20), and playing (70) and a table of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연초 한파 주말까지 간다...광주·전남 오늘도 눈

을미년(乙未年) 새해 첫날인 1일 광주·전남지역에 8cm 이상의 눈과 영하 6.5도의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과 아침 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늦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1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3도~7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적설량(강우량)은 1~3cm(5mm 내외).
올해 첫 주말인 3일과 4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이 3도~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오는 5일 비 소식과 함께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비가 그친 7일(수요일)부터 평년기온이 2~4도가량 더 떨어지는 등 또다시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줄겠다”며 “새벽에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에

황홍규 학술원 사무국장 임명

Portrait of Hwang Hong-gyu and text announcing his appointment as Deputy Education Officer of Gwangju City Education Office.

Advertisement for 'Jeollanam-do Food Culture Improvement Project' awarding 'National Best Agency' to 'Namdo Jungsungsikdan' for their 4 pillars of food safety and quality.

Advertisement for Shanghai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SUIBE) 2015 new student recruitment, featuring a collage of students and university buildings.